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설기현 이동국 “지성-영표 빈자리 우리가 메운다”



<이동국>

오늘밤 풀럼·애스턴 빌라전 출전 대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30·토트넘)를 이번 주말엔 어렵게도 볼 수 없다.

맨유는 15일 오전 1시30분(이하 한국시간) 왓포드와 애스턴 빌라의 홈 구장인 빌라 파크에서 중립경기로 FA컵 준결승전을 갖는다. 토트넘은 이날 밤 9시30분 워건 애슬레틱과 프리미어리그 33차전을 치른다. 하지만 박지성과 이영표 모두 무릎을 다쳐 당분간 그라운드에서 서지 못한다.

그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태극전사'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설기현(28·레딩FC)과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설기현의 레딩은 14일 밤 11시 마데스키스타디움에서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치른다.

이동국의 미들즈브러는 같은 시각 애스턴 빌라와 홈 경기를 갖는다.

설기현은 지난 10일 칼턴 애슬레틱과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뛰었다.

정규리그 출전은 79일 만이었다. 이번 풀럼전에도 설기현의 선발 출장 가능성은 높

다. 칼턴과 맞대결 뒤 스티브 코펠 레딩 감독은 “이번 경기는 설기현에게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오른쪽에서 많은 찬스를 잡았고, 설기현의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설기현은 13일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감독에게 아직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확실한 주전 투톱 마크 비두카와 아예그베니 아쿠부의 틈바구니에서 기량을 보여줄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하고 있는 이동국은 2군 리그에서 착실히 경기 감각과 컨디션을 끌어올려 왔다. 이동국은 11일 열린 에버턴과 2군 리그 원정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1, 2군 통틀어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경기 최우수선수에 뽑힐 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프리미어리그 출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는 조재진(26·시미즈)이 연속 끝에 도전한다. 지난 8일 J-리그 5라운드 오이타 트리니타와 홈 경기에서 시즌 2호골을 터트린 조재진은 15일 오후 3시 가와사키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설기현>

“프로야구가 너무 지루해요!”

“야구가 너무 지루해요!”

전체 23경기를 치른 12일 현재 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지난 해 평균 3시간 10분에서 17분 증가한 3시간 27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유례 없는 대접전이 예고된 가운데 각 팀이 초반부터 끈끈한 승부를 펼치면서 경기 시간이 덩달아 늘어났다. 23경기 중 1점차 승부만 6번이 나왔고, 연장 12회 혈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

바뀌는 등 타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즌 초반은 투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가 팀 타율 0.294에 34득점으로 각 부문 1위를 달리며 공격 야구를 주도하고 있는 데 반해 KIA(팀 타율 0.206), 두산(0.230) 등은 공격력이 아직 따라오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경우다.

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잔루가 많아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해 지루한 느낌을 준다.

찬스는 수없이 딱치는데 득점에 성공하는 비율은 낮아지면서 경기 시간이 길어진다.

한 게임도 2경기나 있었다.

개막 3연전 평균 3시간 28분에서 1분 줄었지만 그래도 긴 편이다. 비슷한 시간대 TV로 중계되는 일본프로야구 경기와 비교해도 길게 느껴지는 게 사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올해부터 좌우 폭을 좁힌 새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 중인데 심판마다 제각각이어서 투수와 타자 모두 적응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승부가 더욱 산중해져 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타자들의 결정타가 부족하다

마운드가 낮아지고 스트라이크 존도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EFA 홈피 “박지성은 아시아의 희망”

유럽축구연맹(UEFA)이 2006~2007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6)을 아시아의 희망으로 주목했다.

UEFA 홈페이지는 13일(한국시간) 대회 준결승에 오른 맨유를 비롯해 첼시, 리버풀, AC 밀란 등 4팀의 선수 90명의 국적을 분석한 기사에서 “아시아의 희망을 배달한다”며 박지성을 특별 소개했다.

이 기사는 출신 선수가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나라로 한국과 칠레, 코트디부아르를 들었는데, 특히 박지

성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동시에 새 역사를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준결승 4팀 소속 선수들의 국적을 보면 잉글랜드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탈리아(15명), 프랑스(7명), 브라질, 네덜란드(이상 6명), 포르투갈(4명), 아르헨티나, 스페인(이상 3명), 체코, 코트디부아르, 노르웨이, 아일랜드, 웨일스(이상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카메룬, 칠레, 크로아티아 등 15개국은 1명씩 대회 4강 진출 선수를 배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서 올림픽 최종예선 확정 짓는다

베어벡호 어제 출국

베어벡호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원정에 나선다.

킵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24인의 올림픽 축구대표팀 태극전사들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시아의 유럽’ 우즈베키스탄과 원정경기를 치르기 위해 출국했다.

아시아지역 2차 예선 F조에서 3연승(승점 9)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베어벡호는 18일 밤 9시(한국시간) 타슈켄트 센트럴 아미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2승1패·승점6)과 예선 4차전을 치른다.

베어벡호는 지난달 28일 우즈베키스탄과 치른 홈 경기에서 올림픽호의 특급 골잡이로 성장한 한동원(성남)의 원맨쇼를 앞세워 2-0 승리를 거두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이에 따라 베어벡 감독은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해 궤조의 4연승으로 각 조 1~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예선 진출권을 일찌감치 따내겠다는 각오다. 현재 F조에서는 한국(3승)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2승1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예멘(3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베어벡호는 지난달 28일 홈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오장민(울산)-백지훈(서울)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수비로 치중하면서 최전방 공격수와 유기적인 공격조율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당장 우즈베키스탄 원정경기의 승리와 더불어 멀리 최종예선을 내다볼 때 다양한 공격루트를 만들어내는 게 베어벡호의 우선 과제다. 더불어 쉽게 무너지는 수비조 전력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 14일(토)
- ▲메이저리그<휴스턴-필라델피아>(07:55·Xports), <뉴욕Y-오랜덤>(10:55·Xports)
 - ▲프로농구 4강 PO 4차전(KTF-LG)(14:50·SBS스포츠)
 -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결승 4차전(KTF-LG)(14:50·Xports)
 - ▲프로야구(SK-두산)(16:30·KBSN Sports), <KIA-삼성>(17:00·MBC ESPN)

-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50·SBS스포츠)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미들즈브러-애스턴빌라>(23:00·MBC ESPN)
- 15일(일)
- ▲잉글리시 FA컵 준결승<맨체스터Utd-왓포드>(01:30·MBC ESPN)
 - ▲메이저리그<샌프란시스코-피츠버그>(07:55·Xports), <샌디에고-LA다저스>(11:00·Xports)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워건-토트넘>(21:30·MBC ESPN)



타티아나 골로뱅의 리턴

프랑스의 타티아나 골로뱅이 13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벌어진 패밀러 서울 컵 테니스 토너먼트에서 중국의 평슈이에게 리턴을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판 폭행 용병 파스코 제명

프로농구 출범 이래 처음

한국농구연맹(KBL)이 경기중 상대 선수와 심판에게 폭행을 가한 창원 LG의 외국인 선수 파스코(27·미국·사진)를 제명했다.

KBL은 12일 부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TF-LG의 2006~2007 현대 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때 파스코가 1쿼터 도중 KTF의 장영재와 최한철 부상을 잇따라 가격한 행위와 관련, 13일 오전 긴급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파스코에게는 제재금 500만원도



부과했다.

경기중 폭력행위와 관련, 외국인 선수가 제명된 것은 프로농구 출범 이래 처음이다. KBL은 이와 함께 장영재에게도 자극적인 언행으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1경기 출전 정지와 50만원의 제재금을 물렸다.

KBL은 향후 이러한 코트 내 폭력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 선발 때 철저한 인성 및 품성을 검증하고, 선발된 후에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미현 2연패 “출발이 좋다”

LPGA 긴오픈 1R 공동 4위 나상욱, PGA 헤리티지 5위

‘슈퍼 팡팡’ 김미현(30·KTF·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긴오픈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우승자인 김미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리유니언의 리유니언 골프장(파72·6천50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선두 그룹에 2타차 공동 4위에 올랐다.

강력한 우승 후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6언더파 66타를 때려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선두로 치고 나갔다.

2005년 겨울에 치른 켈리파인스스를 통해 투어 카드를 땄지만 부상으로 작년에 쉬었

던 김나리(22·하이트)도 4언더파 68타를 때려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세리(30·CJ)와 김인경(19), 최혜정(23·카스코)은 나란히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7위 그룹에 합류, 한국 선수 5명이 10위 이내에 포진했다.

한편 나상욱(23)은 이날 미국 허버타운골프장(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시즌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다. 선두 제리 켈리(미국·63타)와는 4타차.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2언더파 69타를 치면서 공동 10위에 올라 시즌 세 번째 ‘톱10’ 입상을 바라봤다.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2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75위까지 처졌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